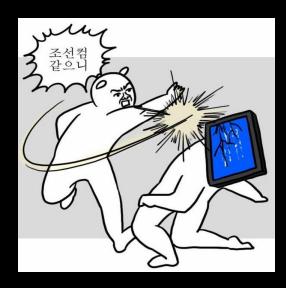
파알못이 다녀온 파이콘2017

성유정

저는 개발자가 아닙니다.

• 순수 문과 출신인데…







대학생 때

직딩 초년 때

지금

언제나 출신의 비밀에 대해 고뇌…



갑자기 파이썬에 관심은 왜?



나무위키와 네이버에 따르면..

- ▶ 1991년에 발표된 <mark>프로그래밍 언어</mark>의 일종
- 창시자는 귀도 판 로썸
- 1989년 크리스마스 주에, 연구실이 닫혀 있어서 <mark>심심한 김</mark>에 만들었다고 함
- 문법이 매우 쉬워서 초보자들이 처음 프로 그래밍을 배울 때 추천되는 언어
- 또한 외부에 <mark>풍부한 라이브러리</mark>가 있어 다 양한 용도로 <mark>확장하기 좋음</mark>
- 활용 분야 : <mark>웹 개발</mark> 뿐만 아니라

데이터 분석, 머신러닝, 그래픽,

학술 연구 등

파이콘은 또 무엇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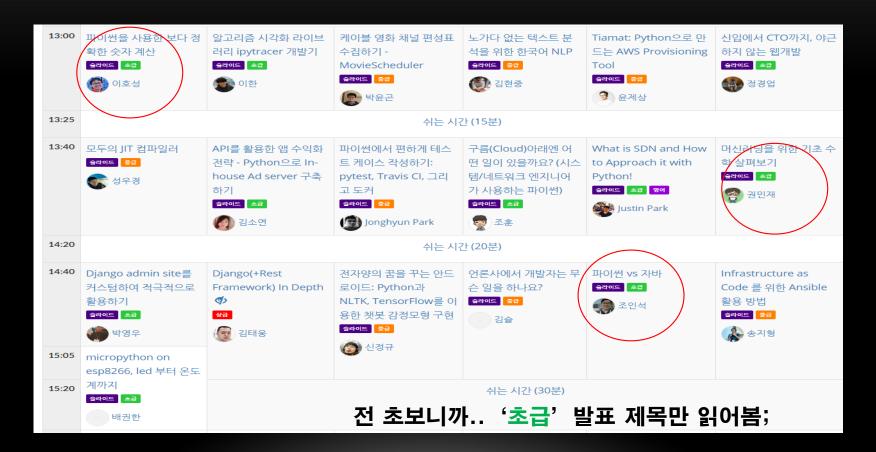
Back to the Basic

>>> PyCon.KR 2017

파이콘 한국 홈페이지에 따르면..

- 세계 각국의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커뮤니티에서 주관하는 비영리 컨퍼런스
- 파이콘 한국은 2014년부터 4번째
- 이틀간 25분 또는 40분 길이의 발표
- 티켓 가격 : 얼리버드 티켓 (4만원) 일반 티켓 (6만원) 후원 티켓 (10만원 이상 자율)

파이콘에서 진행되는 발표들



어쨌든 파이콘 2017 도착







공부하지 않은 자에게 쉬운 길은 없었다.





가장 감동적이었던 강연!!!



https://www.slideshare.net/SungYongLee4/pycon2017-dances-with-the-last-samurai

앞서 강연에서 얻은 교훈

- 고생이라는 것을 한번 겪어본다. (가급적 빨리! 짧게!)
- 이 고생은 인간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다. (가급적 빨리!)
- 기계에게 시킨다. 잘.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.
 안되면 될 때까지. 시도해보면 어디선가 빛이 보인다.
- 뭐 잘 안 되도.. 경험은 얻는다.



파이콘 2017에서 얻은 최종 교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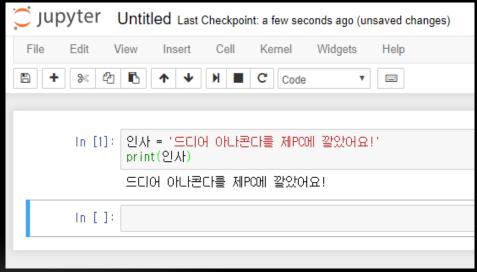


- 잘 모르겠다;
- 직접 안 해보면 평생 모를 것 같다.
- 그동안 등 떠밀림은 많이 당했으니..
- 이쯤에서 타협해볼까?

교훈을 얻었으니 실전으로 (희망사항;)

- 파이썬 튜토리얼을 해보기로 한다; 드디어;;
- (비밀) 사내 파이썬 특강 몇번 들었는데,
 정작 내 컴퓨터에는 아나콘다 설치한적 없었음;;





다 잘 될 겁니다. 그렇게 믿읍시다. (무책임)

